14강. 에필로그-정신분석학, 불교 그리고 우리

1. 정신분석학의 강령, “트라우마를 기억하라!”

◇ 우리는 그 증후가 나타났던 충격적인 장면으로 환자의 주의를 직접적으로 이끌었고, 그 장면에서의 정신적 갈등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신적인 과정, 내가 이후에 <퇴행>이라고 명명했던 신경증의 특징을 발견하였다.

환자의 연상 작용은 우리가 해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장면에서부터 초기의 경험으로 후퇴하였고, 현재를 교정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석이 과거에 몰두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퇴행은 꾸준히 더욱 더 뒤로 인도했다. 처음에 그것은 규칙적으로 우리를 사춘기로 데려가는 듯이 보였고, 나중에는 실패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점들로 인해 분석 작업은 훨씬 더 뒤로 거슬러 가서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진찰로도 접근할 수 없었던 유아기 시절로까지 나아갔다. 퇴행적인 방향은 분석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정신분석학은 현재에 속해 있는 그 어떤 것도 과거의 것을 되짚어 참고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모든 병원적(病原的)인 경험은, 비록 그것 자체가 병원적이지는 않지만 나중의 경험에 병원의 성질을 부여했던 이전의 경험을 함축하는 것처럼 보였다.『정신분석 운동의 역사』(1914)

-정신분석학은 일정 정도 플라톤의 상기(anamnēsis)론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신분석학은 망각보다는 기억을 치료의 가장 강렬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가지게 된 트라우마는 어른이 되어버린 그를 지배하게 된다.

-고통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트라우마를 기억하기만 하면,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된다.

-트라우마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불쾌를 피하려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욕망이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찾아온다는 점이다.

-불쾌를 피하려는 우리의 욕망이 외적인 힘에 의해 좌절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된다.

-인간의 원초적 욕망은 타자에 의해 충족되거나 아니면 좌절된다.

-트라우마는 그 발생이나 소멸도 모두 타자와 관련된다.

2. 불교의 강령, “무의식적 기억을 제거하라!”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사람에게 실체가 없다는 것(人無我, pudgala-nairātmya)', 그리고 '대상에게도 실체가 없다는 것(法無我, dharma-nairātmya)'을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전도되지 않은 인무아와 법무아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식)삼십론』을 짓는다.

그런데 인무아와 법무아를 가르치는 것은 '번뇌의 장애(煩惱障, kleśāvarṇa)'와 '인식의 장애(所知障, jñeyāvarṇa)'를 끊게 하기 위해서다. (…) 번뇌의 장애와 안식의 장애를 끊는 것은 또한 '해탈(解脫, mokśa)'과 '완전한 지혜(一切智性, sarvajñatva)'를 깨달아 얻기 위해서이다.
『유식삼십송석(唯識三十頌釋)』「스티라마티의 서문」

-바수반두는 알라야식이 자아와 대상이란 허구적 이분법, 즉 허망분별(虛妄分別)의 근거라고 진단한다.

-알라야식 때문에 인간은 내적으로는 자신의 자아에 대해 집착하고 외적으로는 외부 대상에 대해 집착하게 된다.

-바수반두에 따르면 해탈과 완전한 지혜는 '사람과 대상에게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현실화되는 순간, 그래서 알라야식은 작용을 멈추는 순간에 찾아든다.

-불교에 따르면 모든 애착과 집착은 '없음'의 경험, 즉 정확히 말해서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온다.

-우리와 관련된 어떤 것이 영원히 '있음'의 세계에 머문다면, 우리에게는 애착과 집착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없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 인간의 기억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이다.

-없다는 생각은, 그것들이 과거에 있었다는 기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다. 바수반두가 애착이나 집착의 기원을 일종의 기억의식, 즉 알라야식에서 찾았고, 애착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알라야식의 작동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 우리 시대의 철학적 화두, 기억과 망각!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짐 깨나 지는 정신은 이처럼 더없이 무거운 짐 모두를 마다하지 않고 짊어진다. 그러고는 마치 짐을 가득 지고 사막을 향해 서둘러 달리는 낙타처럼 그 자신의 사막으로 서둘러 달려간다.

그러나 외롭기 짝이 없는 저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낙타는 사자로 변하는 것이다. 사자가 된 낙타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여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 정신이 더 이상 주인 또는 신이라고 부르기를 마다하는 그 거대한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맞서 "나는 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새로운 가치의 창조. 사자라도 아직은 그것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쟁취, 적어도 그것을 사자의 힘은 해낸다. […] 그러나 말해보라,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는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세 단계의 변화에 대하여」

-정신분석학이나 유식불교는 모두 무의식적 기억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사유 전통이 무의식적 기억을 다루는 해법은 상이하다.

정신분석학이 트라우마와 관련된 무의식적 기억을 의식적으로 기억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유식불교는 알라야식으로 대표되는 무의식적 기억의 작용 자체를 의식으로부터 추방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의 노예가 된다면, 현재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점에서 두 사유 전통은 일정 정도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니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과거의 기억을 잊어야만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망각이라는 것이다. 니체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 발전을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비유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는 노예로 길들여지는 삶을 극복하여, 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다.

-기억과 망각이란 쟁점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가능성을 숙고하도록 만든다.

-알라야식을 끊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도 과거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